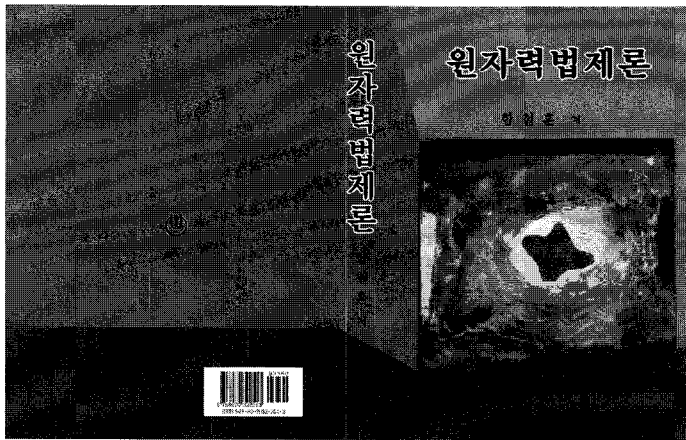


원자력법제론

“국내 원자력법제 총망라 집대성”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 /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규모 지진, 생태계의 교란 등 지구촌 곳곳에 각종 환경 재앙을 초래함으로써 환경 난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세계화의 진행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오늘날의 환경 위기는 특정 지역의 국지적 차원을 넘어 일순간에 광역화되고 있으며 국경을 초월한다. 따라서 현대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인류적 위기로서 지구온난화의 문제는 국제적 공동 대처가 요구된다.

지난 1세기는 과학 문명의 발달과 물질적 성장의 시기로 특징 지을 수 있다. 이는 분명 인간의 삶을 완성함에 있어 불가결한 요소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학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위험원을 창출하였으며, 그에 따른 지구 온난화, 식량 및 에너지 자원의 고갈, 노인 인구의 급증 등과 같은 위험 요소들이 오늘날 지구촌 사회의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무엇보다 지구 온난화의 문제는 물자원의 고갈, 폭우, 폭설, 대

20세기 들어 인류가 발견한 제 3의 불, 원자력은 현대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온갖 환경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용도 열쇠이다. 원자력의 이용이 확대됨으로써 지구촌 사회는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의 과부하를 완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눈앞에 닥친 환경 위기도 해소할 수 있는 인류의 희망이다. 다시 말해 원자력은 인류 사회가 갈망하는 쾌적하고 풍요로운 인간의 삶을 창조함에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원자력에 내재된 문제점도 결코 간과될 수 없다. 거대한 힘을 지닌 원자력이 잘못 이용될 경우, 원자력은 인류 사회의 또 다른 재앙이 될 수 있다. 일부 핵무기 우려국의 망동이 그러하며, 핵테러 위협 세력으로서 국제 테러 집단의 준동이 그러하다. 또한 우리는 원자력 시설의 오조작에 의하여 천재지변을 능가하는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목도한 바 있다.

오늘날 국제적 핵비확산 체제는 핵무기로의 파괴적 사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에 부족함이 없으며, 원자력 시설에서의 대규모 사고 발생 가능성을 고려한 예방적 기술도 충분히 개발되어 있으리라 판단된다. 결국 원자력의 미래는 이 두 가지 문제의 해결능력에 달려 있을 것이다.

현재 대구가톨릭대학교 법학부 객원교수인 함철훈 교수의 저서 <원자력법제론>은 위와 같은 원자력의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기술되어 있는 교과서로서의 전문 학술지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원자력 고유의 법적 논제를 4개장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있다.

제1장 총론에서는 오늘날 지구촌 사회의 과제인 지구 온난화의 문제와 그 유력한 대안으로서의 원자력의 긍정적 역할 및 원자력의 윤리 규범의 목적, 지도 원리 등을 기술하고 원자력 실정법의 개념 및 특징 등을 기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원자력의 인위적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Nuclear Security(원자력 보안)'의 확보와

관련된 핵비확산 체제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수단인 안전 조치, 수출 통제, 물리적 방호, 국가 원자력 통제 등을 기술하였다.

제3장에서는 원자력의 공학적 안전의 문제인 'Nuclear Safety(원자력 안전)'에 관한 인허가 제도의 개요, 원자력 시설의 다단계 규제, 원전의 인허가 및 안전 검사·주기적 안전성 평가(PSR), 방사성폐기물 및 원자력 방재 등을 기술하였다.

제4장에서는 불법 행위의 문제로서 특별법에 의한 원자력 손해 배상 제도를 취급하였다. 즉 원자력 손해 배상의 일반론, 외국의 원자력 손해 배상 제도, 원자력 손해에 관한 국제 협약 및 우리나라의 원자력 손해 배상 제도 등이다.

서울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신 현재 한국과총의 이기준 회장님은 추천사에서 저자의 <원자력법제론>은 원자력을 법률적 시각에서 분석·정리한 근래에 보기 드문 우리 학계의 큰 성과이며, 모든 과학기술 분야에서 야기될 수 있는 다각적 법률 문제가 종합적으로 집적되어 있어 법학도는 물론 이 공학도들이 과학기술법제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역작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장인순 한국 원자력연구원 고문계서도 추천사에서 저자의 <원자력법제론>은 원자력 이외의 과학기술법 연구에 기록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교육계와 과학기술계의 원로이신 두 분의 평가에 전적으로 공감

하며 법학자로서 함철훈 교수의 <원자력법제론>에 대한 소견을 밝힌다.

올해는 근대 법학 교육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인 법학대학원(로스쿨)이 출범하는 원년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앞으로 도래할 법학 교육의 전개에 대해 기대와 불안이 엇갈린 채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을 창출하기 위한 암중 모색이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법학대학원의 성패를 가름하는 잣대는 새로운 교과 과정의 개발과 이를 뒷받침할 교재의 개발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함철훈 교수의 <원자력법제론>은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매우 상징적 저술임에 틀림없다.

특기 사항으로 저명한 동양화가 이신 일랑 이종상 선생님의 작품이 표지에 삽입되었다는 점이다. "범죄 없는 마을"이라는 제목의 이 그림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저자의 희망적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다. <원자력법제론>은 예술가의 작품이 표지로 사용된 국내 최초의 법률 서적이 될 것이다.

함철훈 교수의 <원자력법제론>이 갖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보다 국내외적으로 참조 모델이 전무한 상황에서 이루어 낸 독창적 저술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도 원자력법 분야에 있어서는 함철훈 교수의 저서를 반드시 참조해야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